

# 산업보건에 대한 단상 (斷想)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진우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도 무겁다” 고 한다. 실제 그 누구이든 사람의 생명은 본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특수하게 관련된 사람들, 즉 배우자, 자식, 부모 등에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의심 없는 사실이다.

조규상 선생님과 같은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 운동의 선구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경과 애정(눈물), 그리고 그것이 노동이라고 하는 인간 생존의 가장 근원적 행위 과정에서 잃는 것의 아이러니에 대한 분노이었던 것은 아닐까.

필자에게 산업보건에 눈을 뜨게 한 것도 외람되지만 생명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일깨운 문송면이라는 한 소년의 수은중독 사건이었다. 필자의 대학생 시절인 1988년 한 신문에 보도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직업병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현역 군복무 후 우연찮게 그때까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공무원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필자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문송면 사건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었다. 이것이 필자가 노동부를 주저 없이 선택하게 한 중요한 동기였다.

이런 인연으로 들어온 노동부에서 필자가 두 번째로 근무한 부서가 산업보건환경과이었다. 대학시절 신문지상에서 읽었던 사건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들뜸과 호기심에 부서에 발령받은 후 제

일 먼저 찾은 곳이 대형서점이었다. 그런데 그때 느낀 점은 국내에는 참고할 만한 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무실 서가에서 일본의 '안위법 편람' 이라는 책을 접하였다. 일본의 방대한 법령, 하위규정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고 유권해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의 지적 호기심이 '폭발' 하였다. 산업보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어를 공부하여야 한다는 '정언명령' 이 필자를 사로잡았다. 까막눈이었던 일어, 독어를 틈나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정부과건유학도 일어와 독어를 같이 습득할 수 있는 일본의 교토대학으로 갔다. 이 학교는 조규상 선생님께서 유학한 곳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 개선은 의지와 이념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생명이라는 생각에 밥먹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학습에 열을 올렸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아(學而時習之 不亦悅乎)" 가 필자의 감성을 휘어 감았다. 이때 새삼 느낀 점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의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최소한 10년 정도는 뒤쳐져 있고,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초와 철학이 전반적으로 빈곤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줄곧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은 '우리의 산업안전보건은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였다. 길지 않은 경험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필자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 온 것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산업보건 관계자는 모름지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은 그 성격상 생산활동과 달리 정(正)의 강화인자를 갖기 어려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산업보건 문제는 비(非)가시적이고 덜 즉각적이고 발생확률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문제를 발굴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산업보건의 발전을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산업보건분야도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 산업보건은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공무원도 준비된 자에 의한 전문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횡보(橫步)만 할 수 있다. 사전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한 사람이 행정을 한다면,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리에 배치 받고 나서야 개념부터 처음 접하는 일은 사라질 때가 되었다.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산업보건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과거와 달리 이 복잡한 사회에서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해결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단 말

인가. 그런데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는 특출난 개인이 아닌 이상, 개인에게 맡겨 해결될 수는 없다. 조직과 사회가 풀어야 한다.

셋째는 ‘거대담론’에는 강하지만 ‘디테일’에는 약한 우리나라의 고질병이 산업안전보건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아니 이 약점이 압축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곳이 산업안전보건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 철학이 빈곤하다 보니 콘텐츠를 채우기보다 추상적 선언이나 겉포장에 치중하게 되고, 누군가가 크게 떠들어야 그 때서야 부산을 떨고, 그마저도 잠시뿐이다.

결국에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결국 현실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형이상학이 아닌 형이하학이, 거대담론보다는 디테일이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숲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조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넷째, 산업보전에 종사하는 분들도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산업보건업무를 큰 틀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당 수의 산업보건 종사자는 자신의 좁은 분야만 알면 된다는 생각에 산업안전보건의 총론, 공통원리, 인접분야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래서는 산업보건의 ‘기업 속의 유기체’가 아니라 ‘섬 속의 무생물’이 될 공산이 크다. 산업보건 종사자라면 자신의 서가에 최소한 5권 이상의 책은 꽂혀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지도 읽지 않으면서 산업보전을 한다는 것은 난센스이지 않은가.

산업보건은 산업안전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적이다. 행정대상의 범위도 산업안전보다 넓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중요시되고 각광을 받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저절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역시 준비된 자에게만 그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다. 아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취(先取)하여 사회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아닐까 싶다. 🍀